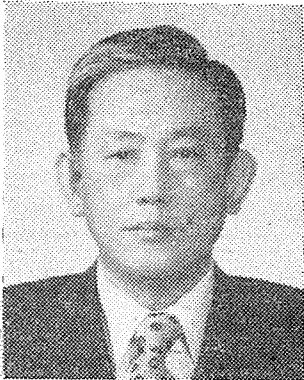


## 새롭고 알차게 엮어지기를



現代는 科學技術의 時代이며 나라마다 다투어 科學技術을 開發하  
므로서 國力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國力의 基準이 바로 그 나라의  
科學技術水準에 달려 있다고 할 程度로 科學技術의 比重은 莫重한  
것입니다.

이러한 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科學技術人들을 代辯해온 「과  
학과 기술」誌의 誌齡 100號 發刊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  
우기 「과학과 기술」誌를 發行하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創  
立 11돐을 맞는 달이기에 더욱 敬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科學技術界의 總意를 直接  
또는 「과학과 기술」誌를 通해서 늘 代辯함으로써 國政에 反映도 하였고 國家施策을 所상히 報  
道하므로써 科學技術人의 總和를 이루게 하는 동시에 國家施策에 따른 科學技術向上에 盡力하  
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誌는 創刊以來 100號를 맞기까지 갖은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科學技術界와  
産業界를 연결하는 產學協同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學會 協會 團體의 相互 交流의 通路가 되었으며 共同對話의 廣場을 마련해 왔다  
는 點에서도 높이 致賀하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올바른 科學知識과 技術利用이 널리 紹介됨에  
따라 새로운 發見이 뒤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科學技術이 發展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科學技術」誌의 使命은 重要한 것이며 모든 科學技術人의 새로운 科學情報과 迅速한  
「뉴스」를 報道해야 할 것이며 科學論壇를 通해 科學技術人의 有機的 交流의 場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國內에서 發刊되는 1千餘種의 雜誌中에서 科學學會 專門會誌는 100餘種 있으나 綜合科學技術  
誌는 「과학과 기술」만이 唯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科學技術 報道的 媒體가 넉넉치 못합니다. 유독 이번에 誌齡 100號를  
맞는 「과학과 기술」誌 만이 韓國科學技術界의 貴重한 山資料를 엮고 있어 무척 多幸한 일입  
니다.

「과학과 기술」誌가 날로 새롭고 알차게 엮어지기를 바라며 「과학과 기술」誌를 發刊하는 韓國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며 거듭 誌齡 100號를 祝賀합니다.

科學技術處  
長官 崔 亨 燮